

정화의 작은이들



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앙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.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

연락처: 22 Royal Palm Dr, Thornhill, ON L4J 5R3
Tel: 905-889-6518 E-Mail: sunlee333@hotmail.com
월례회;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:00 시

제 61 호

9 월 형제회 소식

2010 년 9 월 25 일

후반기 캠페인 주제: "비소 짓기"

오늘 월례회 순서

- † 오전 10 시: 수녀님 영성 강의
- † 오전 11 시: 미사
- † 오전 11 시 40 분: 월례회
- † 오후 1 시: 친교

형제회 소식

- † 10 월 월례회는 연례피정 관계로 개최하지 않으며 다음 월례회는 11 월 27 일(토), 한밤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. 10 월달 회보는 휴간합니다.
- † 사부님 추도식이 10/3(일), 오후 7 시부터 St. Phillip Neri Church (2100 Jane St., Downsview, at 401 & Black Creek Rd)에서 거행됩니다.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.
- † 지난 8/27, 평의회에서 수락된 입회, 유기 및 종신 서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입회자(8 명):

전기남(미카엘), 장득남(비오),
황보태영(요셉), 홍광수(트리포니아),
백승욱(프란치스코), 백승희(글라라),
이시현(카타리나), 예준호(요셉)

유기서약자(7 명):

전상훈(프란치스코), 전영혜(글라라),
황숙희(데레사), 박혜숙(레지나),
서호정(마리아), 신상희(율리아나),
오신균(다니엘라)

종신서약자(11 명):

김연재(아그네스), 송경숙(스콜라스티카),
조정순(미카엘라), 오귀주(카타리나),

이두희(그레고리오), 이은자(다미아나),
이숙(비비안나), 성향경(비비안나),
원순자(안나), 윤미숙(글라라),
백영숙(소피아)

- † 10/10(일), 오후 1 시 파견미사 중에 거행되는 종신서약식에 가족, 친지, 회원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† 리따 수녀님(Sr. Rita Kim, fmm)이 계시는 퀘벡 수녀원이 이전하므로 10/1 부터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됩니다.
326, 18e Rue (Limoilou), Quebec, QC
G1L 2E2 Canada
☎ 418-529-5358
- † 회원 주소록을 새로 작성, 배부할 예정이오니 주소나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서기 루실라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도 부탁 드립니다

- † 김애경 자매의 남편 조현일(프란치스코) 형제님께서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.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...
- † 유기서약반의 송경숙 자매의 아버님(최상경, 86 세)께서 체장암 말기로 위중하십니다. 대세를 받으시고 선종하실 수 있도록...
- † 전진심 자매의 장남(전해성 미카엘)의 혼배 성사가 한국 포이동성당에서 10/16(토), 오후 12 시 30 분에 거행됩니다. 축하해주시고, 새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화목하고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도록...
- † 병환 중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...

회계 보고

2010년 8월 31일 현재

내역	전월 이월금	월 수입금	월 지출금	현 잔고
회비	9,271.13	5,140.00	902.21	13,508.92
선교 후원금	5,680.28	765.00	0.00	6,445.28
도서 구입	2,140.57	164.00	3.00	2,301.57

평화를 이루는 사람들

(지난 달 8/28, 영적보조자 김 리따 수녀님의
영성강의를 요약, 정리한 것임)

**행복하여라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나님의
자녀라 불릴 것이다.** (마태 5,9).

평화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. 평화는 영혼의
내적인 자세로써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에서도
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의 내적인 힘이다. 이것은
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날 주신 마지막 메시지이다.
마지막 만찬으로 당신 자신을 빵으로 주신 후에
이렇게 말씀하신다. “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
없도록 하여라.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(요한
14,1).” 제자들에게 고통, 두려움, 실망, 좌절이 올 것
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당신을 믿을 것
을 새삼 강조하신다. 내적인 평화의 기초는 흔들리지
않는 신앙이다. 깊고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
께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.

세상이 주는 평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잘
되어 질 때 가지는 기분 좋고 안락한 느낌이다. 이 느
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많이 다른
자기 만족이므로 외적인 상황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
기 쉽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
을 때라도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개인적인 평화도 중요하다. 왜냐하면 개인적인 평화
없이 가족간의, 공동체의 또 세상의 평화는 없을 것이
기 때문이다.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것
을 요구하신다. “평화로운 사람은 행복하다.”고 예수
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. 그러나 “평화를 이루는 사
람은 행복하다.”고 말씀하신다. 다른 사람을 위해서
평화를 이루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다.

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과
평화스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.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
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였고 평화의 선물을 받게 되
었다. 그리스도는 자유로이 평화를 주신다. “다만 여

러분은 믿음에 기초를 두고 곳곳하게 건디어 내며 여
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
(골로 1,23).” 하나님의 활동과 우리의 바램이 일치함
으로써 당신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그
분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. 하나님과 평화스러운
관계를 가질 때만이 산상 설교를 살 수 있는 준비가
된 것이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.
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다. 갈등의 상황들을 해
결하는 것은 참된 평화로 가는 기본적인 단계임을 우
리는 알아야 한다. 가족간의 갈등, 같은 본당 공동체
안에서 소외시킴,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무례한
행동 등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
힘든 도전들을 제공한다.

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절당하는 것
도 감수해야 한다. 나를 해친 사람들과 화해를 하기
위해서 용기와 겸손이 필요하다. 이웃과 가족들에게
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
해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. 그냥 바라만 보고 관
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쉽다.

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치와 성실함
이 필요하다. 참 평화는 강제, 위압, 속임수를 시도하
지 않는다. 참 평화는 내적인 변화에서 오는 행동의
변화, 회개를 통해서만 온다. 이것은 서로 평화롭게
지내며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
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창조함을 의미한다.
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서
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. 우리의
솔직한 기도에 정의를 위한 일을 일치시켜야 하고 또
평화는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
을 인식해야 한다. 정의를 위한 우리의 고군 분투에
의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대한
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. 진정 우리가 평
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정의를
위해서 일해야 한다. 정의에 모순되는 구조를 인식하
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
비폭력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.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
록 주의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.
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,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모
습을 보아야 한다.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
작품대로 겸손하게 사는 삶이 바로 평화를 소유하는
삶이다.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기심, 자랑 그리고
교만 등을 모두 내려 놓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
록 매일 매일의 삶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.